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빌립보서 3:12-16]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찌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이 만약 백미러만 보고 운전한다면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탈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지난 일만 바라보며 산다면, 지나간 일들에 집중하고 놓친 시간들, 기회들만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오늘의 아름다움과 미래의 기회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정말로 놀랍고 완벽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과거는 너무나 끔찍해서 아무것도 개선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잘못이나 성과물들을 기억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삶의 전부이거나 결론이 될 순 없습니다. 바울은 처참한 실패와 놀라운 축복, 이 두 가지 모두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갈망은 분명했습니다.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10-12). 이 구절의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셨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박해자인 바울을 전도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들을 성인들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코 절망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을 바라보십시오.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12).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지나간 일들은 잊읍시다. 지나간 영광에 안주하지 맙시다.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동경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생활 중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애굽에서 종 되었던 죽음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7:10은 이렇게 말합니다. *"10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워야만 합니다. 또한 문자 그대로 과거에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잊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과거에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과거가 우리를 발목을 붙잡게 하거나 과거에 안주해 살아가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잊으셨습니다. *"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12). *"17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10:17).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를 소망하되 우리의 죄나 실패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25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43:25).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과거에 얽매어 산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며 믿는 모든 것(하나님의 치유, 용서, 구속 능력)에 모순되는 일입니다. 그러한 삶(과거에 얽매인 삶)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며, 영적 힘과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과거에 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7-8). 그는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달리기 경기하는 달리기 선수같이 그의 모든 몸의 신경은 결승점을 향해 있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힘과 존재의 목적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옛 것에 죽는 동시에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오늘과 내일의 모든 기회와 가능성에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잡을 준비된 손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롭고, 순결하며 거룩한 새로운 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의 패배들조차 하나님의 더 큰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위한 디딤돌이 될 뿐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므로 내일은 안전합니다.'